

‘독기 품고 복귀’ KIA 최원준, 2군 효과 톡톡



재정비 후 달라진 타구 질·승부욕
복귀전인 롯데전 안타·도루 성공
두산 더블헤더서 홈런·보살 활약
“제가 더 뽀얀 만큼 팀도 더 뽀얀 것”



10일 만에 1군에 복귀한 KIA타이거즈 외야수 최원준(28)이 달라진 모습으로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달 초 타격 부진으로 2군행을 통보받은 뒤,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본 그는 ‘준비된 복귀’로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최원준은 1군 복귀전인 지난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9번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도루를 기록하며 팀의 7-6 승리에 기여했다.

← KIA타이거즈 최원준이 지난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3회 말 무사 2루 박찬호의 볼넷 때 3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원준은 이날 첫 타석인 3회초 롯데 나균안의 변화구를 밀어쳐 우중간 안타로 출루한 뒤 박찬호 타석 때 상대투수의 폭투를 놓치지 않고 2루를 돌아 3루까지 전력질주해 도루에 성공했다. 최원준의 센스있는 주루플레이가 3회 빅이닝의 시작점이 됐다.

최원준은 또 1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도 2번 우익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1홈런) 2타점 2득점 1볼넷으로 팀 승리의 중심 역할을 했다.

최원준은 1회말 1사 후 볼넷으로 출루해 최형우의 좌중간 2루타 때 팀의 선취 득점을 만들었다. 3회말에는 1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서 우월 투런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그는 수비에서도 맹활약했다. 2회초 2사 2루 위기에서 두산 조수행의 우전 안타 때 공을 홈까지 다이렉트로 던져 2루주자 김기연을 잡아내는 보살을 기록해 실점을 막았다.

이렇듯 최원준은 2군에 다녀온 뒤로 시즌 초반과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타구의 질이 달라졌다.

최원준은 2군에서 타구 방향과 임팩트 구간을 세밀히 조정했으며, 상무 복무 시절의 감각을 되살리려 노

력했다.

특히 데이터 분석팀과의 협업을 통해 “강한 타구를 만드는 자세”에 집중했고, 실제로 타구 속도와 정확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2군 조정기를 거치며 기술적 개선뿐 아니라 ‘팀을 살리기 위한 행동’에 대한 자각도 커졌다.

그는 “2군에 있는 동안 TV를 통해 KIA의 경기를 보며 팀이 침체돼 있는 걸 느꼈다. 1루를 돌아 2루까지 뛰는 한 베이스 더 가는 움직임이 부족해 보였다”면서 “내가 1군에서 그런 모습을 더 보여주면 팀 전체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범호 감독의 신뢰도 큰 자산이었다. “괜찮으니 편하게 하라”는 말 한 마디에 미안함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꼈다는 최원준은, 이제는 결과로 보답하고자 한다.

2군에서 재정비 후 1군에 돌아온 그는 ‘무기력했던 베테랑’에서 ‘승리에 집착하는 리더’로 변모했다. 개인을 넘어 팀의 동력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로서 최원준의 변화는 침체된 KIA 타선에 긍정적 자극이 되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포항 스틸러스 “광주FC, 무자격 선수 출전”… 연맹에 이의제기

규정상 ‘0-3 패’ 판정 가능성
대한축구협 “미납 고의성 없어”

포항스틸러스가 연대기여금 미납 문제로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받은 광주FC의 무자격 선수 등록 및 출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했다.

1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이날 포항으로부터 광주가 경기에 자격이 없는 선수들을 경기에 내보냈다는 지적이 담긴 공문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광주가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원)를 국제축구연맹(FIFA)에 미납해 선수 등록 금지 징계가 내려졌으나 이를 모른 채 선수를 등록하고 경기에 임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광주는 알바니아 출신으로 현재 에이스로 활약 중인 아사니를 영입했던 지난 2023년 연대기여금 3000달러를 미납했다.

지난해 8월 광주가 3000달러를 송금했으나 계좌 오류로 반송됐고 이를 담당

한 직원이 휴직하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징계가 내려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선수 등록을 강행했고, 이후에도 경기에 출전시켰다는 점이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무자격 선수가 출전한 사실이 경기 종료 48시간 이내에 제기될 경우 해당 팀은 0-3 패배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포항은 이 기준에 따라 지난 14라운드 경기에 대해 정식 이의를 제기했고, 이

에 따라 광주는 몰수패 가능성에 놓였다. 나아가 징계 이후 영입된 선수가 출전한 모든 경기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광주의 미납이 고의성이 없었고, 리그의 안정성을 고려해 경기 결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맹에 전달했다.

현재 광주는 미납된 금액을 다시 송금한 상태이며, 벌금을 내면 FIFA 징계는

자동 해제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FIFA나 연맹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상황은 유동적이다.

지역 축구계는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리그 공정성과 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광주가 이번 시즌 상승세를 타던 중 발생한 이슈인 만큼 팀 분위기에 도적장은 타격이 예상된다.

민현기 기자

전대사대부고 이승후, 파라 배드민턴 선수권 단식 우승

장애인 배드민턴 최연소 국가대표 이승후(16·전대사대부고 1년·사진)가 2025년 국제 바레인 파라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20일 광주광역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이승후는 지난 13~18일 바레인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단식 우승과 복식 3위를 차지했다.

180cm가 넘는 신장에 달하는 뛰어난 신체조건을 갖춘 이승후는 꿈을 위해 담양수북중에서 광주 월봉중으로 전학까지 하며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에서 훈련에 매진한 결과 이번 대회에서 세계 무대 첫 금메달을 따내며 기대를 입증했다.



이승후는 앞서 지난해 열린 2025 장애인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내 랭킹 1위이자 2024년 국가대표인 주동재(서울의료원)를

꺾고 단식 1위를 차지하며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아 왔으며 지난해 10월 말 ‘제4회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에 참가했던 이정수(19세·한국체대 1년) 선수와 함께 장애인배드민턴 유망주로 기대되고 있다.

최동환 기자

송원대 송관우, 전국체전 주짓수 -85kg급 광주 대표 선발

송원대학교 주짓수팀 송관우(2년·사진)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광주광역시 대표로 출전한다.

송관우는 지난 17일 송원대 학생회관 2층 무도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 광주광역시 대표 선발전에서 -85kg급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선발전은 대한주짓수회 주최·주관으로 열렸으며, 체급별 50여



표로 참가한다.

명의 선수가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송관우는 -85kg급 우승으로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한다.

최동환 기자

남부대 사격팀, 대구시장배 전국사격대회서 금빛 총성

금 5·은 2·동 2개… 박성준 4관왕

남부대학교 사격팀 선수들이 제8회 대구시장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남부대 사격팀은 지난 9~15일 대구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25 제8회 대구광역시시장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금 5개, 은 2개, 동 2개를 포함해 다수 종목에서 입상하며 대회 상위권을 휩쓸었다.

가장 돋보인 선수는 박성준으로, 센터화이어 권총 개인·단체전과 스탠드 권총 개인·단체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대회 4관왕에 올랐다. 박성준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대학부 권총 부문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여자부에서는 손진주가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손진주는 앞서 열린 창원시장배 대회에 이어 2연승을 거두며 전국 최정상급 기량을 입증했다.

이 밖에 △여자 공기소총 단체 2위(손진주·김효빈·김소현·이지요) △여자 25m 권총 개인 2위 원채은, 3위 김예진(1학년) △25m 권총 단체 1위(원채은·김예진



남부대학교 사격팀 선수들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대구 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된 2025 제8회 대구광역시시장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센터화이어 권총 남자 대학부 단체 1위를 수상했다.

남부대 제공

(3학년)·김성은·김예진(1학년)) △공기 권총 단체 2위(김예진(3학년)·원채은·황다소·김예진(1학년)) 등에서 고른 성과를 냈다.

김순희 남부대 사격팀 감독은 “올해 첫 대회에 이어 두 번째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어 흐뭇하며 힘들 때마다 훈련에 잘 따준 선수들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

고 소감을 말했다.

유종상 부장 교수는 “선수들이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 한국 사격 발전에 남부대학교 사격팀이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